

韓國과 美國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Activity in Korea and the
U.S. Rural Families : Application of the Deacon & Firebaugh Model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任 貞 檮

Division of Consumer Sciences

University of Illinois

Associate Prof. : Vicki S. Fitzsimmons
Jeanne L. Hafstrom

Dept. of Home Management

Associate Prof. : Jeong-Bin, Im

— 목

—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V. 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Korean and United States families manage resources. Further, socioeconomic and social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frequency of family resources management will be investigated for each country. Comparison of results will be made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S.

Most studie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have used urban samples, so this study adds to understanding of another segment of the populations. Family resource management variables, as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by asking respondents how often they used a variety of ways to handle finances and time. Independent variables were : (a) total household income, (b) respondents education, (c) respondents ages, (d) householder size, (e) family adaptability, (f) family cohesion, and (g)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Data for the Korean sample were collected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during summer 1989. U.S. data were collected in two counties of Illinoi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 473 Korean samples and 301 U.S. families. In both samples, the respondent was the financial manager, the person who usually handled the finances and paid the bill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As a results, U.S. respondents tended to engage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more frequently than Korean respondents. This could be attributed to a longer history of consumer educ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taught in the public schools and through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 the U.S.

Social-psycological variabl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frequency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n both samples.

The differences in both samples are that, in Korea, frequency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ncreased as household size and educational years increased,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the relationships of these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Korea and the U.S. families, and this results represents tha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are important determinants, even in different cultures.

One hand, the differ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result as the difference of some statistical differences.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education, and can be applied to stud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other rural areas.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정의 자원관리 행동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유교적 전통주의 생활양식 및 전통적 가치가 뿐리깊은 반면, 미국은 상당히 민주화, 개인주의화, 산업화된 사회이다(임정빈, Hafstrom & Fitzsimmons, 1990). 이렇듯 양국은 가치지향과 산업화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Chung & Hafstrom(1989)이 지적했듯이 한국인들의 낮은 소비자교육수준은 미국인들의 경우와 비교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 무역관계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의 가족자원관리행동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의 가족자원관리 행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가족자원관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양국의 조사대상자를 통해서 조사될 것이며, 양국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 결과가 비교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배경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동시에 양국에 있어서 가족자원관리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도시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의 또 다른 집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농촌은 한국의 농촌보다 산업화수준이 더 높으므로, 한국농촌이 더욱 산업화 되도록 변화시키기에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양국의 농촌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가족자원관리체계의 기본은 보편적이므로 비교 횡문화적 연구에서도 Deacon 과 Firebaugh(1988)의 가족자원관리 모델이 유용할 것이다. 비록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더라도 기본적 요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한다. 즉, 가족들은 투입(in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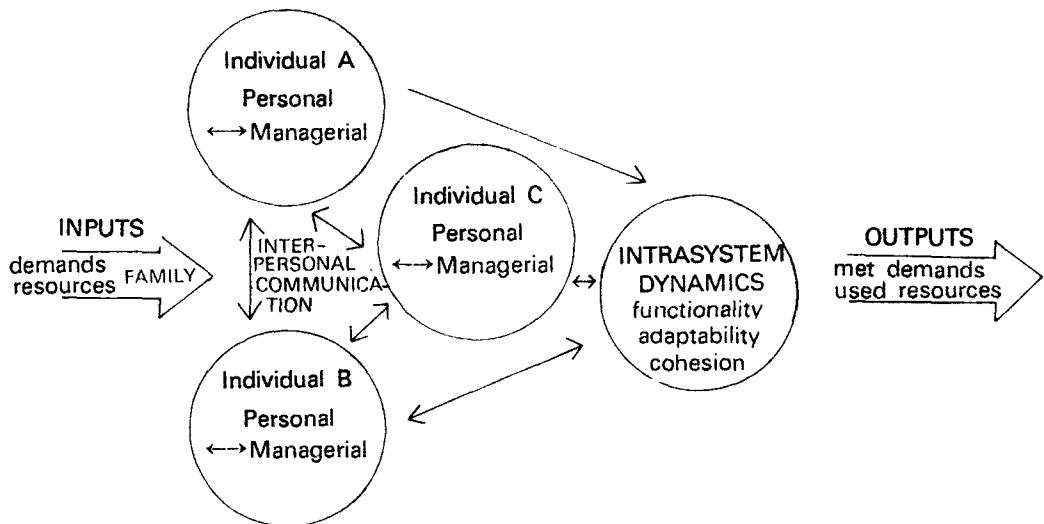


그림 1. Individuals as subsystems of family system.

통과과정(throughput), 산출(output)의 단계를 거친다. 투입들은 요구(목표, 사건, 사회적 규범)와 자원(소득, 개인적 성향)의 형태로 존재한다. 통과과정들은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 안에서 조직된다. 관리적 하위체계는 가족자원관리와 더불어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planning), 수행(implementing)과 같은 관리활동들의 다양성이 연구되어 왔던 것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다. 인적 하위체계는 능력과 가치관을 개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Deacon과 Firebaugh 모델(그림 1)이 지시하듯이, 투입은 통과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모델(그림 1 삽입)이 지시하듯이 투입은 통과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개인들은 고립적으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간 의사소통으로 통과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간 의사소통은 투입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능력, 적응력, 응집력 등이 체계내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체계내의 역동성은 체계의 통과과정과 산출, 둘 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적응할 수 있는 가족은 외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전략을 사용하며, 그들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생활의 질과 함께 더욱 만족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족은

자원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도록 변화시키는 적응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계로부터의 결과인 산출은 요구들과 일치하게 되고, 자원이 사용되는 것이다.

가족체계의 하위체계로서 개인들을 포함시킨, 확장된 Deacon과 Firebaugh 모델은 일종의 복합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모델을 검증하기 쉽고, 가족자원관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이 모델의 일부분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선택된 모델만이 여기에서 검증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체계에 대한 투입으로서의 요구와 자원;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 적응력; 그리고 통과과정으로서 가족자원관리 행동이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조사자들은 다양한 가족자원관리행동들을 연구해왔다. 이러한 조사연구들과, 각 조사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척도들이 표 1에 제시되었다.

Deacon과 Firebaugh 모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도 또한 본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세우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가족자원관리의 어떤양상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가족자원관리행동의 빈도등 가족자원관리행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계를 예

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1. 요 구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의 한 가지 지표로서 가족수를 들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관리활동의 빈도가 많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가족자원관리의 빈도는 가족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표본들에서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nes & Morris, 1989; Ethridge, 1982; 이정우·오경희, 1988; Williams, 1985).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부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는데 (Barrow, 1983), 대상이 Georgia주의 젊은 농촌가정으로 표본수가 50으로 한정된 연구였다.

2. 자 원

자원은 가족자원관리의 빈도에 정적으로나 부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이 많을수록 관리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리해야 할 자원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원이 많을수록 융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 즉각적이거나 빈번하게 관리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가계소득이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의 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과 가족자원관리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Barrow, 1983; Danes & Morris, 1989; McKenna & Nickels, 1989). 그러나 Williams(1981)는 가계소득과 가족자원관리의 관계가 여성의 경우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는 중간소득의 가족이 가장 적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곡선의 관계 (curvilinear relationship)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박혜경, 1981). 본 연구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가계소득과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교육은 자원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가족자원관리를 더하게 하거나, 또는 덜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예로,

한 개인은 계획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대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지식이 정보탐색과 계획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가족들 둘 다에서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자원관리의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왔다 (Heffernan, 1982; 임정빈·안영애, 1987; 이정우·박미금, 1988; 박혜경, 1981; 박미금·장명옥, 1985). 한편 Williams(1981)는 미국가족들의 경우, 교육에 의한 가족자원관리에는 성별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논문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났듯이 교육과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rujillos(1976)와 Williams(1981)의 결과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가족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가계역할에 관한 문화적 가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차이를 보인 연구는 하나도 없다 (최재석, 1982; Joang, 1981).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에 더욱 관여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효과적인 가족자원관리 기술을 발달 시킬 기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계는 가족자원관리에 있어서 여성은 더욱 관여하도록 선택하였고, 여성들이 더욱 잘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가족자원관리에 있어서 남성보다 더욱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간의 차이는 응답자의 연령에 대해서도 기대되었다. 임정빈과 안영애(1987) 그리고 박미금과 장명옥(1985)은 연령과 가족자원관리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이든 사람들은 연령과 경험으로부터 효율성이 생기므로 가족자원관리 빈도가 감소한다; 또한 나이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한국인 표본에 대해서는 부적인 관계가 기대되고 미국의 표본에

대해서는 정적인 관계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미국가정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은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Godwin & Carroll, 1986 ; Varga, 1977 ; Williams, 1981) 미국가정들은 한국가정에서처럼 성인자녀들과 함께 노인부모가 생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관리도 한국에서처럼 젊은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대인간 의사소통

Deacon 과 Firebaugh의 모델이 가족자원관리에 있어서 가족간 의사소통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가족간 의사소통은 가족자원관리 행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토론은 계획을 함께하는 것이므로, 가족자원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가족에 있어서 토론이 적거나 또는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이 혼자 관리하게 되는 경향이 되고, 그 사람이 가족자원을 관리하는 빈도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토론을 증가시키는 것은 또한 좀더 많은 관리방안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가족자원을 관리하는 빈도를 증가시킨다. 긍정적인 가족간 의사소통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족자원관리의 빈도는 토론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관리행동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므로,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가족자원관리의 빈도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소통의 또 다른 형태가 자기개방이다. 이것 역시, 가족자원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개방의 결여는 가족간에 공유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대한 가족자원관리의 빈도는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기대되고 있다.

4. 체계내 역동성

가족적응력과 응집력이 다른 맥락에서는 널리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적게 가졌던 분야이다. Deacon 과 Firebaugh(1988)는 이들 용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 적응력은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부 또는 가족조직의 능력” 그리고 (b)응집력은 “가족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 가족이나 개인의 적응력이 클수록, 가족자원관리가 증가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가족적응력과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기대된다. 또한 응집력이 큰 가족일수록 가족자원관리의 빈도는 더 커진다. 이러한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체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족자원관리 방법을 더욱 이해하기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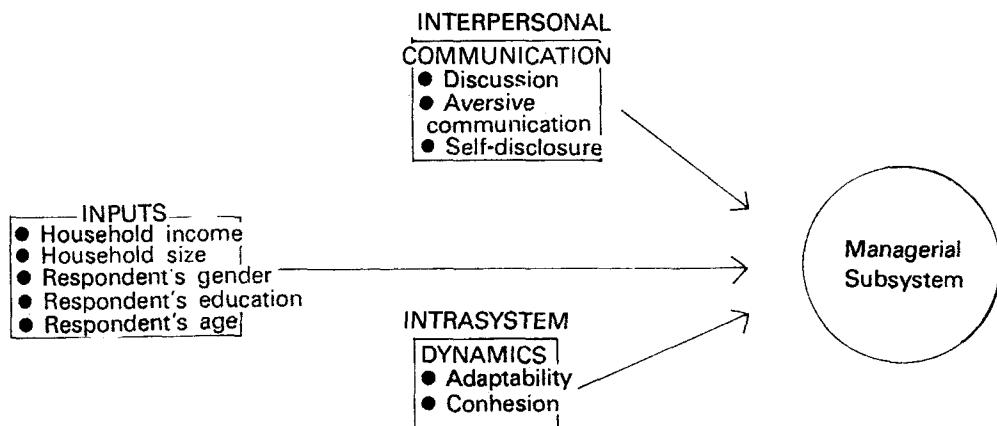


그림 2. Model depicting hypothesized relationships.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한국자료는 1989년 여름에 농촌지역에서 수집되었다. 전국 각도의 읍·면이하(제주도 제외)의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60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가운데 약 50%는 가정학 전공대학생이 직접 농촌가정을 방문하여 면접하였고 나머지 50%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자기 가정이 농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들 부모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율은 79%로 4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미국자료는 미국 중서부의 주된 농경지인 일리노이 주의 2개 카운티에서 수집되었다. 1988년 봄에 질문지를 우송하여 자기기재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본가정은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미국에서의 응답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몇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응답율은 높이도록 하였다. 즉, 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엽서를 보냈고, 질문지 완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여 질문지를 반송용 우편으로 보냈다. 돌아온 질문지 중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것은 31.4%의 회수율을 나타낸 것이며, 대체로 미국 농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表 1. Family resource management measures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n previous studies

Research study	Family resource management measure
Barrow, 1983	money management skills score
Danes and Morris, 1989	plan to change financial situation in 5 years
Ethridge, 1982	pays credit card in full or not
Godwin and Carroll, 1986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Hefferan, 1982	decision to save level of saving
Im and An, 1987	planning
Lee and Oh, 1988	home management knowledge or skill
Lee and Park, 1988	home management activities
Mckenna and Nickols, 1988	retirement planning
Park, 1981	financial record keeping
Park and Chang, 1985	planning
Trujillo, 1976	completion of credit counseling
Varga, 1977	completion of credit counseling
Williams, 1981	financial planning
Williams, 1985	keeps financial records shops for best buys carries through plans sets aside time for work plans for time use coordinates activities does things with needed figures net worth pays no finance charges meets deadlines reaches goals management procedures

表 2. Item means and factor analysi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ariables, Korean sample, n=473

Variables ^a	Item mean	Rotated factor loadings (varimax)			
		1	2	3	4
Make plans on how to use your money	3.4	.72*	.11	-.07	.01
Save on a regular basis for goal(s)	3.2	.56	.04	.19	-.01
Write down where money is spent	2.8	.73*	.01	.06	.06
Use a written budget	3.1	.69*	.18	.02	-.08
Evaluate spending on a regular basis	2.8	.71*	.11	.03	.13
Evaluate your needs before you buy	3.9	.30	.62*	-.06	.04
Keep bills and receipts where they are easy to find	3.9	.41	.39	-.27	.03
Pay interest on charge accounts	2.3	.06	.05	-.03	.82*
Buy on impulse	2.3	.08	-.03	.81*	-.11
Are sorry you bought something	2.2	.06	-.06	.67*	.18
Make a list before you shop	2.8	.43	.31	.17	.23
Combine shopping with job or errands	3.3	.15	.53*	.26	.40
Make only minimum payment on charge accounts	4.0	-.10	.65*	-.12	.01
Make plans on how to use time	2.9	.37	.49*	.23	-.03
Do things when they need to be done	4.1	.08	.53*	-.17	-.47
% variance explained	24.4	10.9	7.9	6.8	

^aRetained for further analysis.

The question asked was, "Most of us have ways to handle our finances and time. Please circle how often you..."

表 3. Item means and factor analysi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ariables, Korean sample, n=301

Variables	Item mean	Rotated factor loadings (varimax)			
		1	2	3	4
Make plans on how to use your money	4.3	.77*	.09	-.11	-.00
Save on a regular basis for goal(s)	3.6	.48	.03	-.51	-.14
Write down where money is spent	3.6	.69*	.15	.08	-.11
Use a written budget	2.5	.61*	.18	.34	.05
Evaluate spending on a regular basis	3.6	.63*	.36	.14	-.03
Evaluate your needs before you buy	4.2	.39	.52*	-.18	.06
Keep bills and receipts where they are easy to find	4.6	.31	-.05	.15	-.62*
Pay interest on charge accounts	2.6	.08	-.09	-.79*	.05
Buy on impulse	2.3	-.02	-.22	.19	.68*
Are sorry you bought something	2.4	.13	.06	.22	.76*
Make a list before you shop	4.0	.18	.69*	.15	-.27
Combine shopping with job or errands	3.9	.02	.83*	.05	.11
Make only minimum payment on charge accounts	2.1	.10	.12	.80	.12
Make plans on how to use time	3.5	.38	.57*	-.09	.04
Do things when they need to be done	4.2	.32	.29	-.21	-.18
% variance explained	24.4	14.5	8.2	7.7	

^aRetained for further analysis.

表 4. Means, standards deviation, and T-Ratio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ariables

Variables	Korea (n=473)		U.S. (n=301)		t-ratio ^a
	X	S.D.	X	S.D.	
Make plans on how to use your money	3.4	1.1	4.3	0.9	11.66***
Save on a regular basis for goal(s)	3.2	1.2	3.6	1.2	4.38***
Write down where money is spent	2.8	1.4	3.6	1.2	8.45***
Use a written budget	3.1	1.2	2.8	2.0	- 2.91**
Evaluate spending on a regular basis	2.8	1.2	3.6	1.2	9.27***
Evaluate your needs before you buy	3.9	1.0	4.2	0.9	4.52***
Keep bills and receipts where they are easy to find	3.9	1.3	4.6	0.8	8.48***
Pay interest on charge accounts	2.3	1.4	2.6	1.7	2.72**
Buy on impulse	2.3	0.9	2.3	0.9	- .13
Are sorry you bought something	2.2	0.8	2.4	0.7	2.02*
Make a list before you shop	2.8	1.3	4.0	1.1	13.18***
Combine shopping with job or errands	3.3	1.2	2.1	1.3	7.72***
Make only minimum payment on charge accounts	4.0	1.2	2.1	1.3	- 19.16***
Make plans on how to use time	2.9	1.3	3.5	1.2	6.33**
Do things when they need to be done	4.1	0.9	4.2	0.7	2.89**

*P<.05 **P<.01 ***P<.001

^aPositive signs indicate more frequent involvement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by Illinois respondents ; negative signs indicate more frequent involvement by Korean respondents.

2. 조사 대상자

양국에 있어서 질문지 응답자는 각 가정의 재정관리자로서 금전지불 등 재무관리를 하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양국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결혼상태였는데, 이는 두 나라의 농촌인구의 결혼상태의 차이와 표집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응답자 중의 96%가 기혼인 반면, 미국은 67%만이 결혼한 상태이다. 한국은 응답자의 49.9%가 여자이고, 미국은 57.5%가 여자이다. 한국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5세이고 교육연한은 9.3년이고, 미국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9.6세이고 교육연한은 12.8년이다.

3. 자료분석

모든 분석은 IBM 퍼스널 컴퓨터의 SPSS/PC+(Norusis, 1988)를 사용하였다. 양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자원관리의 빈

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적용하였다. 양국의 가족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4.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가족자원관리 변수는 금전과 시간을 다루는데 어떤 방법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가를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측정하였다(그림 2 참조).

응답유형은 1= 전혀 아니다, 2= 가끔, 3= 경우에 따라서, 4= 흔히, 5= 거의 언제나 등으로 점수화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15개 변수가 사용되었는데, 종속변수로 사용된 하위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적용한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그 요인들은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표본 각항의 중앙치와 회전된 요인부하값은 표 2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각의 요인은 요인부하값에 있어서의 급격한

하락 여부를 조사하였고, 같은 요인에 속한 변수들이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지(Marradi, 1981) 알아보기 위해 자세히 분석되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각 요인에 대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65 수준에서 채택하였다.

한국 표본에서는, 4개 요인이 (15개의 가족 자원 관리 변수의 분산율) 50%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은 가족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Cronbach's α 는 .73이다. 요인 2는 시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묶여있으며, 요인 2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중 '청구액에 대하여 최소한만 지불한다'라는 변수는 다른 네 가지 변수들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계획이 아니고 재무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변수는 요인에서 삭제되었다. 시간 계획 변수에 관한 요인의 Cronbach's α 는 .51이다. 요인 3에는 2개의 변수만 포함되었고 Cronbach's α 는 .45였다. 요인 4에는 단 한 가지 변수만이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요인 1은 가족자원관리라고 명명하였는데, 한국 표본의 다중회귀분석의 종속 변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요인 1은 가족자원관리의 한 가지 측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명칭을 가족자원관리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가족재정관리의 행동이라고 하기로 하였다.

미국 표본의 요인분석에서도 4가지 요인이 총 분산의 55%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자원관리를 나타내는 동일한 4개의 변수가 요인 1에 포함되었는데 요인 1의 Cronbach's α 는 .72이다. 요인 2는 시간계획을 나타내고 있으며, Cronbach's α 는 .63이다. 요인 3에 묶여진 2개의 변수는 청구액처리행동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요인 4에는 3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는데 그중에 2개의 변수가 구매 행동을 측정하고 있었다: Cronbach's α 는 .07이었다. 그리하여 '가족재정관리행동'이라는 명칭을 가진 요인 1만 미국표본의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가 되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a) 가계 총소득 (b) 응답자의 교육수준 (c) 응답자의 연령 (d) 가족규모 (e) 응답자의 성별 (f) 가족 적응력 (g) 가족 응집력 (h) 가족간의 의사소통 등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하였다. 나머지 변수는 연속척도이고, 종속변수와의 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가족규모와 응답자의 교육은 가족재정관리행동과 비선형 관계였기 때문에, 가변수(dummy variables)로 변형시켰다. 가변수 구분은 (표 7)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나타나 있다. 가족 적응력과 가족 응집력은 Olson, Ma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1982)이 보고한 척도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은 1=거의 전혀 아니다, 2=가끔 한번, 3=가끔, 4=자주, 5=거의 언제나 등으로 측정하였다. 각 척도의 요인부하값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한 요인분석에서 산출되었고,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가지 척도는 모두 종속변수와 선형관계에 있었다.

Kansas 주립대학의 연구진(Schumm, Figley & Fuhs 1981; Schumm, Race, Morris, Anderson, Griffin, MuCutchon & Benigas 1981)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서로다른 측면이 토론, 의사소통회피, 그리고 자기개방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응답방법은 1=전혀 아니다, 2=드물게, 3=때때로, 4=언제나 등의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토론 척도만 종속변수와 선형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척도 중의 하나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의사소통회피 척도를 만들기 위하여 의사소통회피 척도로 부터 3개의 변수를 만들었다: (a) 배우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b) 서로에게 화가 났을 때 오랫동안 침묵한다 (c)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모욕 한다. 마찬가지로, 자기개방성 척도에서 남겨놓은 변수는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4가지 변수 모두가 종속변수와 선형관계에 있는지 조사되었

表 5. Regression results of frequenc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Korean sample

Variables	Model 1 beta (n=414)	Model 2 beta (n=422)	Model 3 beta (n=421)
Household size			
1-3 persons (omitted category)	—	—	—
4-6 persons	.189**	.188**	.167*
7-10 persons	.215**	.238***	.208**
Household income			
Respondent's education	.080	.091	.073
Respondent's gender	.128*	.108*	.079
Respondent's age	-.059	-.045	-.053
Respondent finds it difficult to express his/her true feelings to spouse/partner	-.003	-.024	-.019
Spouse/Partner has tendency to say things that would be better left unsaid	.038	.033	.058
Respondent and spouse remain silent for long periods of time when angry with one another	-.016	-.022	-.018
Spouse/partner insults respondent when he/she is angry with respondent	-.082	-.115*	-.095*
Discussion	(a)	.212***	(a)
Family adaptability	(a)	(a)	.229***
Family cohesion	.238***	(a)	(a)
R ²	.14**	.13***	.14***
R ² (adjusted)	.12***	.11***	.12***

(a) Variable omitted from regression equation to avoid multicollinearity problems.

*P<.05 **P<.01 ***P<.001

다. 비선형관계에 있는 변수들은 빈도분석에 따라 이분변수(dichotomous)로 recode 하였다: 0="가끔 혹은 전혀 아니다"와 1="때때로 혹은 언제나"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recode한 변수는 (a) 서로에게 화가 났을때 오랫동안 침묵한다(b)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recode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a) 배우자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났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b)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때 상대방을 모욕한다.

모든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사하였다. 한국의 경우, 적응력, 응집력, 그리고 논의 척도는 서로 상관도가 높았다($r \geq .6$). 이들 척도와

변수는 즉, 응답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의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 상관도가 높았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세가지의 서로 다른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각 표본에서 상관도가 높은 두 변수는 같은 회귀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식은 표 5와 표 6의 모델 1, 2, 3에 있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족자원관리 빈도

한국과 미국의 응답자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가족자원관리 전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있

表 6. Regression results of frequency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Illinois sample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n=186)	beta (n=184)	beta (n=168)
Household size			
1-3 persons (omitted category)	-.097	-.085	-.074
4-6 persons	-.107	-.085	-.096
7-10 persons	—	—	—
Household income	-.216**	-.224**	-.203*
Respondent's education			
1-11 years (omitted category)	—	—	—
12 years	-.008	-.008	.040
13-15 years	.020	.033	.036
16-24 years	.124	.142	.128
Respondent's gender	.119	.112	.124
Respondent's age			
20-30 years	.128	.117	.143
31-45 years	.245*	.229*	.257*
46-64 years	.225**	.243**	.247*
65-94 years (omitted category)	—	—	—
Respondent finds it difficult to express his/her true feelings to spouse/partner	(a)	(a)	-.043
Spouse/Partner has tendency to say things that would be better left unsaid	-.049	-.052	-.046
Respondent and spouse remain silent for long periods of time when angry with one another	-.106	-.120	-.112
Spouse/partner insults respondent when he/she is angry with respondent	.078	.077	.060
Discussion	(a)	.197*	(a)
Family adaptability	(a)	(a)	.184*
Family cohesion	.205*	(a)	(a)
R ²	.15**	.15***	.15***
R ² (adjusted)	.08**	.08**	.07*

(a) Variable omitted from regression equation to avoid multicollinearity problems.

*P<.05 **P<.01 ***P<.001

어서 차이가 있다. 평균, 표준편차, T-ratio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미국 응답자는 한국 응답자 보다는 좀더 자주 가족자원관리를 수행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보다 소비자 교육의 오랜 역사와 학교와 생활개선단체를 통한

재정관리 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결과에는 세가지 예외가 있다. 즉 충동구매, 가계부 쓰기, 청구액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지불하는 것 등이다. 두가지 후자의 변수에 대해서, 한국 응답자는 미국의 응답자보다 더 자주 전략을 수행하였다. 충동구매에 있어서는 두 표

본간에 차이가 없었다.

청구액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지불한다는 변수의 결과는 다소 놀라운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청구액에 대하여 최소로 지불한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가족들은 흔히 소득압박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가족이 외상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필요 때문이며 따라서 모든 가족은 최소한의 지불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경제적 필요 보다는 사치를 조장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2. 가족자원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과 미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한국의 경우는 Adjusted R²은 3개의 모델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으며, 그 계수는 .12(모델 1과 2)와 .11(모델 2)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Adjusted R²이 모델 1과 2에서 .08 (P<.01)이며 모델 3에서는 .07(P<.05)이다.

사회심리적 변수(토론, 가족적응력, 그리고 가족응집력)들은 양국의 경우 모두 가족재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표본에서는 P<.001 수준에서, 미국 표본에서는 P<.05 수준에서 모두 다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세가지 모델에 있어서 다른 변수 즉 가족규모는 가변수를 써서 두개의 카테고리로 하였다. (4~6명과 7~10명: P<.01). 응답자의 교육과 상대방에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모욕한다는 것은 두 모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미국의 경우에도 다른 결정변수 즉, 응답자의 연령(41~64세, P<.01 31~45세, P<.05)과 가계소득(P<.01)을 가변수로 하였다. 이들 변수는 세가지 모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한 바와 같이, 토론, 가족적응력, 그리고 가족응집력이 모두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가족재정관리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가족재정관리행동은 가족이 토론을 많이함에 따라 증가하

고, 적응을 잘하고, 응집력이 클수록 가족재정관리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가 이전에는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가족재정관리 행동은 가계규모가 클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된 상관관계와 선행연구에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평균 가족수가 5人인데 비해 미국은 3人이었다. 가족원이 많을수록 자원과 소득의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증가된 많은 투입은 보다 빈번한 통과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가족재정관리 행동도 증가될 것이다.

선행연구와 가설에 일치하듯이,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재정관리행동이 증가하였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재정관리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정적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미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에서는 가계소득이 가족재정관리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이었다.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아마도, 가족재정관리 행동은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재정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인것 같다. 혹은 만약 응답자가 가계소득에 대해 책임이 큰 사람이라면, 가족재정관리는 아마도 응답자의 배우자에게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응답자가 가계소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가족재정관리에는 시간을 덜 소비하게 될 수도 있다. 배우자는 가족재정관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루게 될 수도 있다.

한국에 있어서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에 있어서 연령을 두개의 범위로 하여 가변수를 사용했을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5세 이상의 응답과 비교할때 31~45세 집단과 46~64세 집단은 가족재정관리를 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 두 연령집단의 응답자들은 은퇴를 위한 계획과

일상생활에 덧붙여 자녀 대학교육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년기 응답자 보다는 가족재정관리에 대한 더 필요성이 더 클것이라고 볼수 있다. 노년기 집단은 가족재정관리를 보다 효과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그들은 건강등의 이유로 하여 가족재정관리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미국가정은 한국가정에 비해 어떤 특정한 가족 자원관리 행동을 더욱더 자주 행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가족재정 관리의 몇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규모가 크면 가족재정관리의 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46~64세 계층의 저임금 가계의 응답자들이 가족자원관리를 더 잘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가족상호작용은 양국에 있어서 가족재정관리의 결정요인으로써 중요한 것이었다. 가족 적응력, 가족응집력, 그리고 토론이 모든 것이 한 국과 미국가정에 있어서 가족재정관리의 행동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연구 교육을 위해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Deacon과 Firebaugh의 자원관리모델은 비교문화적 가족자원관리의 연구를 위한 변수를 선정하는데 변수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모델에 근거한 모든 가정된 관계가 모두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델에 관한 좀더 다른 분석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정의 표본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차후에는 다양한 표본에 대한 적용이 요구된다. 즉, 연구는 이 두 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농촌지역과의 비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것은 이번 연구의 결과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농촌가족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널리 확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세째, 미국에서 연구한 몇몇 한국 학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자원관리를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가족의 가족 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한국가족에 적합한 교육적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목표가 가족재정관리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즉 이것이 자원관리기술을 개선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기술은 인간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체계내 역동성을 발전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자원관리기술을 가장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수준이 낮고 가족규모가 작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젊은 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기대된다. 또한 위에서 나타난 차이는 가족자원관리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농촌 가족의 재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결과를 가족자원관리의 수업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미국 학자들에게 지식의 기초를 보강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가족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견해를 갖게 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미금 · 장명숙(1985).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13.
- 2) 박혜경(1981). 우리나라 주부들의 가계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0,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53-78
- 3) 이정우 · 박미금(1988). 도시 기혼여성의 가치관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28, 301-322
- 4) 이정우 · 오경희(1988).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31-148.
- 5) 임정빈 · 안영애(1987).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5,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249-275.
- 6) 임정빈 · Hafstrom · Fitzsimmons (1990).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농촌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4).
 - 7)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 8) Barrow, N.L.B.(1983). Factors that Influence How Young Farm Families Manage Household Income, M.S. thesis, University of Georgia.
 - 9) Chung Y.S., & Hafstrom, J.L.(1989).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 Should Consumer Education Be Mandatory in Korea ? in M. Carsky e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 10)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 205-215
 - 11)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12) Ethridge, V.(1982). Factors Related to Credit Card Users on Basis of Method of Repay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293-299
 - 13) Godwin, D.D., &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14) Hefferan, C.(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47-55
 - 15) Marradi, A.(1981). Factor Analysis as an Aid in the Formation and Refinement of Empirically Useful Concepts, in D.J. Jackson & E.F. Borgatta eds., Factor Analysis and Measurement in Sociological Research :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Beverly Hills, CA : Sage.
 - 16) McKenna, J.S., & Nickols, S.Y.(1988). Planning for Retirement Security : What Helps or Hinders Women in Middle Years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17, 153-164
 - 17) Norusis, M.J.(1988). SPSS/PC + V2.0 Base Manual for the IBM PC/XT/AT and PS/2, Chicago : SPSS
 - 18) Olson, D.N., McCubbin, N.I., Barnes, H., Larsen, L., Muxen, M., & Williams, M.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1982). : University of Minnesota
 - 19) Schumm, W.R., Figley, C.R., & Fuhs, N.N.(1981). Predicting Self-disclosure Anxiety in the Marital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sychology, 107, 273-279.
 - 20) Schumm, W.R., Race, G.S., Morris, J.E., Anderson, S.A., Griffin, C.L., McCutchen, M.B., & Bevilas, J.E.(1981). Dimensionality of the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and Marital Conventionalization : A Third Report, Psychological Reports, 18, 163-171
 - 21) Trujillo, J.A.(1976).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elect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Clients in a Private Agency Credit Counseling Program, M.S. thesis, Purdue University.
 - 22) Varga, K.A.(1977) Analysis of Factors Predicting Successful Completion of Nonprofit Credit Counseling, M.S. thesis, Purdue University.
 - 23) Williams, F.(1985) Family and Personal Resource Management a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S.Y. Nickols ed., Thinking Globally-Acting Locally, Washington, D.C.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24) _____ (1981). Financial and Work Management Procedures as Affected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ntributing to Quality of Life, in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Western Regional Home Management-Family Economics Educators Conference, Denver, CO : Western Regional Home Management-Family Economics Educators.